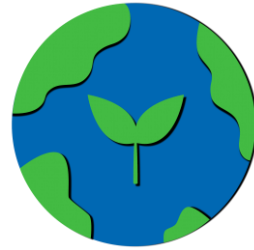


AJOU GREEN



아주그린 최종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내 환경주간 캠페인 진행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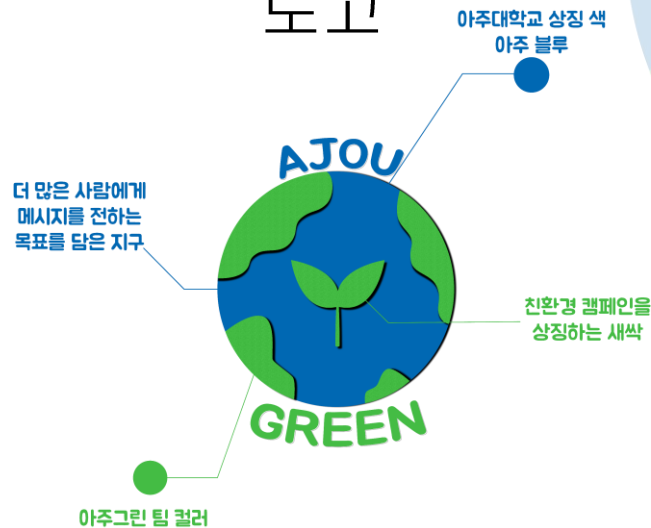
1. 아주그린 소개
2. 캠페인 배경 및 목표
3. 활동 내용
 - 사전 학습
 - 환경 주간
 - 토크쇼 및 전시회
 - 최종 다큐멘터리

아주그린 (AJOU GREEN)

아주대학교 + 그린 캠페인

교내 환경 주간을 진행해서 탄소 저감을 실천하고 아주대학교의 그린 캠퍼스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팀입니다.

로고



팀원



SNS





아주대 내 분리수거 미흡

교내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커다란 통 속에 모여며 한번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들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아무렇게 섞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대와 그린캠퍼스

아주대학교는 ‘아주비전 5.0’의 전략 및 과제 중 하나로
그린 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분리수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린캠
퍼스 구현을 위해 교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그린 팀원들의 변화



아주대 구성원들의 변화

아주대학교의 변화 (그린캠퍼스로의 이행)



8월 4주~9월 2주

사전 학습 주간

9월 2주~10월 1주

환경주간 1
앰비언트 광고
(그린, LIGHT)

9월 3주~10월 5주

환경주간 2
참여형 광고
(그린, DREAM)

10월 3주~11월 3주

환경주간 2
메일 삭제 챌린지
(그린, MOVE)

11월 28일

그린, NOW 토크쇼
및 전시회

12월

환경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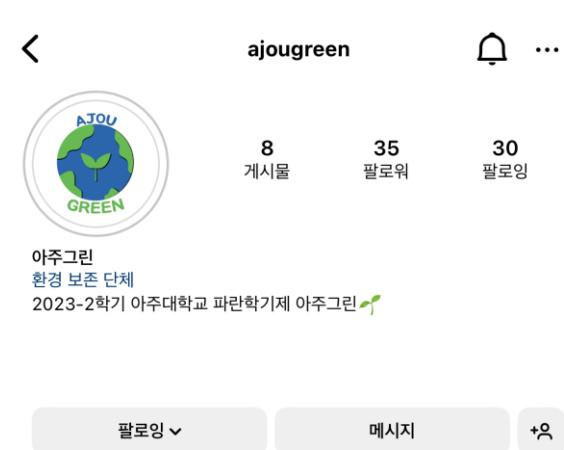
사전 학습 주간 - 문헌연구

환경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에세이를 작성한 후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책의 내용,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습니다.

환경 서적으로는 ‘침묵의 봄’,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ESG 스쿼어’를 읽었습니다.

캠페인 마케팅 서적은 ‘공간을 경험하다.’, ‘캠페인 인문학’을 읽고 에세이와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ajougreen

사전 학습 주간 - 다큐멘터리 시청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른다.’라는 환경 다큐멘터리를 미리 시청한 후,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육식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적인 채식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극단적인 채식은 어렵겠지만, 채식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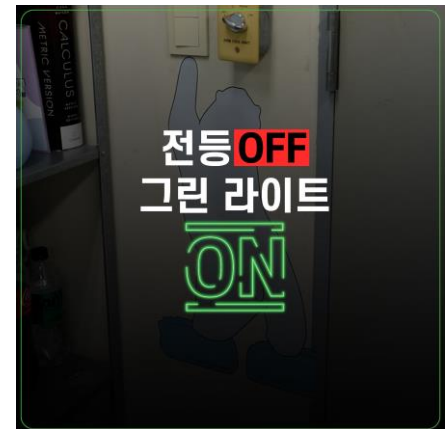
환경주간 1

앰비언트 광고 (그린, LIGHT)

전력 소모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앰비언트 광고*를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북극곰이 전등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으로, 불을 끄고 나가는 것을 까먹었더라도 북극곰의 손끝에 시선이 닿아 소등하고 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의도의 광고입니다.

(*앰비언트 광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자연 등을 매체로 제작한 게릴라성 광고를 말한다.)



환경주간 2

참여형 광고 (그린, DREAM)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참여형 광고*를 다산관 1층 로비에 설치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의 모습을 부착하고, 지구를 덮고 있는 발 모양을 친환경 소재의 파티션으로 세웁니다. 컵 수거함을 이 둘을 이어주는 다리로 이용하여 카페 플라스틱 컵을 버릴 수 있게 합니다.

수거된 컵들은 모두 깨끗하게 씻어 '에코야 얼스'라는 친환경 분리수거 기업에 전달했습니다.

(*참여형 광고: 광고 수용자가 광고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완성되는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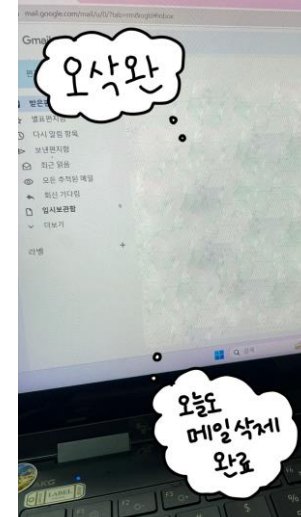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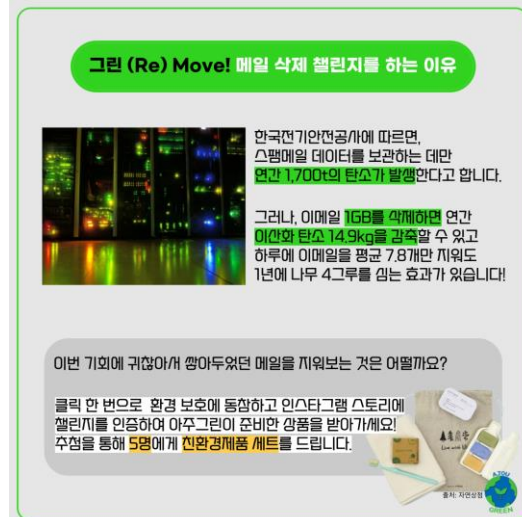
환경주간 3

메일 삭제 챌린지 (그린, MOVE)

학생들에게 몇 년간 쌓인 수많은 메일을 삭제하자고 호소하며 행동하길 권유하는 챌린지입니다.

전교생에게 메일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 또한 삭제해야 한다는 문구를 함께 삽입하여 쌓인 메일함을 비우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메일 1mb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14g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린, NOW 토크쇼 및 전시회



그린, NOW
전시회 및 토크쇼

2023~2학기 파란학기제 팀 아주그린은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교내 환경 주간 캠페인을 진행하며 아주대학교의 그린 캠퍼스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개인의 친환경 실천 방안'을 주제로 기획한 전시회 및 토크쇼를 통해 '환경 보호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가 아닌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다양성~

강연대상
아주대 구성원 및 지역 주민

행사일시
2023. 11. 28 (화)
전시회 | 13시 ~ 20시
토크쇼 | 18시 ~ 20시

행사장소
전시회 | 아주대학교 학생회관 테라스
토크쇼 | 아주대학교 성호관 소극장

문의사항
아주그린 인스타그램 @ajougreen
이미소 010-6343-3960

초청 강사
자히드 후세인
출연
mbc 아서와 한국 처음이지
jtbc 차이 나는 클래스
jtbc 비정상회담 화답 파키스탄 대표

Volunteer Korea 이사
한글교보필요(파키스탄 대표이사)

토크쇼 참여 후원조서

아주대학교 성호관 소극장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그 앞 학생회관 잔디광장에서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아주그린의 한 학기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활동입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활동을 모두 정리하여 한 눈에 보여주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소개하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경 보호 효과를 소개합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아주그린 활동을 진행해오며 촬영한 영상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각 활동 별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며, 토크쇼 이후 영상을 하나로 합쳐 20분 분량의 환경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AJOU GREEN



감사합니다.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내 환경주간 캠페인